

2005년
6월 1일
제215호
(월간)

健康과自然農業



새한 유기농업협회 발행인 정진영 편집인 정진영 http://www.organic.or.kr
 위: 160 서울시 중구 가락동 72-3 성원빌딩 4층 전화: 02-406-4462 FAX: 02-403-4463

THE HEALTH & ORGANIC FARMING

농협오리온 016-01-168315 유기농업협회 광고 및 구독신청: 02-406-446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3회 ORGANIC & NATURAL 2005

친환경·유기농박람회 2005 개최

본회 주최로 2005년 7월 15일(금) ~ 18일(월)의 4일간에 걸쳐 강남구 삼성동소재 코엑스(COEX) 컨벤션·대서양홀에서 1차 친환경유기농산물 홍보와 유기농산업발전을 위한 국내외 선진기술과 식품소재 첨가물 정보교환을 목적 지자체와 협력하여 각 지회·도지부별 전시 적극 참가 요망

친환경제품 식품소재 첨가물전을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전람회를 통하여 서울을 중심으로한 소비자 대상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업에 대한 관심은 정보제공은 물론, 국내 식품가공업체들에게는 세계적인 친환경 식품소재와 첨가물의 종류 및 용도별 사용기술을 습득·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내 유기농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유기농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월드전람이 주관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업체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식품소재 및 첨가물 생산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겠기에 국내 최대의 국제적 전람회 전문업체인 (주)월드전람이 주관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 지회·지부별로 지자체와 공동출품요

국내 최고급의 전람회장인 코엑스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단위 부스당(3m×3m기준) 임대료가 180만원씩으로 대단히 고가이나 본회의 지회나 지부는 150만원으로 할인하여 제 공기로 협약된 만큼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출품료를 노력하여 보기 바란다. 참가 신청기간은 6월 20일까지이며 신청금 납부 등은 본회 사무국에 전화(02-406-4462)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부대행사 다양

4일간의 전람회 기간중에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①유기농·친환경농산물 시식행사 ②친환경유기농산물 한미당 장터 ③유기농재배단지 체험 ④국제 유기농산품 세미나 ⑤자연 건강관리 강연회 등을 준비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유통인 모두에게 친환경유기농업에 관한 국내외의 유익한 정보와 가공기술과 마케팅 전략 등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유기농산업의 진흥발전에 크게 기여시켜 나갈 계획이나, 지회별로 단체관람단을 조직하여 회원전원이 참가하며 공부해 보기 바란다.

지난 78년에 걸친 본회는 27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친환경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시켜 오면서 생산회원과 소비자 및 유통업체를 지도·배양함으로써,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확대를 유도하여 지난 27년에 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물론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켜 내기위해 3만여 회원들과 더불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본협회의 일관된 제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5일(금) 10:00시부터 7월 18일(월) 19:00시 까지의 4일간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코엑스(COEX) 컨벤션·대서양홀에서 『제3회 유기농·

▼ 제3회 2005친환경·유기농박람회 국제 유기농산품 세미나 일정표 (장소: 코엑스 컨벤션홀)

일자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7월16일 (토)	09:00~10:00	등록 및 접수	
	10:00~10:10	개회식-국민의례, 추사, 인사말	사회자: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 월드전람 대표이사
	10:10~11:30	일본의 유기농산품 개발실태와 향후전망	일본 IFOAM-Japan 전 회장 도쿠에 미치야기(徳江倫明)
	11:30~12:00	친환경유기농업육성 발전방향과 향후전망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정진영 회장
	12:00~13:00	중식	
	13:00~14:30	세계의 유기농산품 산업발전 현황과 전망	Susan Phillips(미국) 미국농업무역관 부관장
	14:30~14:50	국내 친환경 유기농산품 개발현황과 인증제도	배경근 박사 (주)농무원 유기농재배연구소대표
	14:50~15:50	질의 응답	
	15:50~16:00	폐회 후 전람회장 관람	

유기농 시론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패턴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자!



정진영 회장

우리가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를 머리속에 그려 보자면, 우선 생산품을 가락시장과 같은 대형도매시장으로 모아서 경매를 통하여 도매상인에게 넘어가고 다시 소매상인인 백화점·슈퍼나 동네 채소가게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형태가 몸에 밴 유통패턴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유통경로가 요즘 많이 변모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으로 본다. 현재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5년이나 10년 뒤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앞서갈 수 있는 대안은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범ゆる 생산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해주고 소정의 농가소득을 취하여 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현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는 온라인화로 진행중

현재의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는 크게보아 3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오프라인(Offline)상의 백화점·대형합영점·소형이지만 전문점(초록마을이나 신시같은 전문체인점), 생협을 통한 직거래조직 등이 있으며,

먹거리,살거리,알거리,늘거리,썰거리,롤거리 등을 마련해 주5일근무제를 유기농산물 직거래의 확립기회로 삼아야

둘째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매장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정확한 숫자과과도 안되고 있으나 출잡이 100여개가 넘는 사이트들이 소비자에게 대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셋째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서 오프라인상의 매장을 근거지로 삼아 온라인사업까지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형태이다. 운영의 안정성으로 볼 때 이 방법이 가장 권장할만한 선택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현 상황은 친환경농산물유통의 비중이 오프라인상에서 온라인쪽으로 기울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에 이런 경향으로 변해왔으나, 지금은 다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서로 얼굴을 보며(Face to Face) 직거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에 따른 도농녹색교류활성화하기 직거래를 촉진하게 돼

독자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또는 도·농녹색교류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도·농녹색교류 활성화의 원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다.

▶ 3면으로 이어짐

▶ 한국유기농자재센터 ☎ 02-449-0677

(질소 3.5%, 인산 2%, 가리 2%, 칼슘 3%, 고토 2%, 당밀첨가)

★유기재배 전용

금수강산골드

제품의 특징

① 국내유일 유기재배 전용 생리활성비료

농촌진흥청고시 제2004-18호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에 맞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혼합유기질비료이다.

② 유기재배 및 전환기유기재배의 병예방작용 필수비료

쌀겨,유박에서 분해되는 초산과 겨자유성분은 토양기생성 병균의 발생억제와 녹병, 도열병 등 공기전염성 병균의 발생을 억제한다.

③ 시력을 높이는 생리활성물질 비료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질소는 물론 품질을 높이는 인산, 가리도 유효성분량대로 공급될 수 있는 복합성분이며, 특히 비타민, 아미노산, 칼슘, 미그네슘 성분이 고르게 배합된 화학비료 대체용 생리활성비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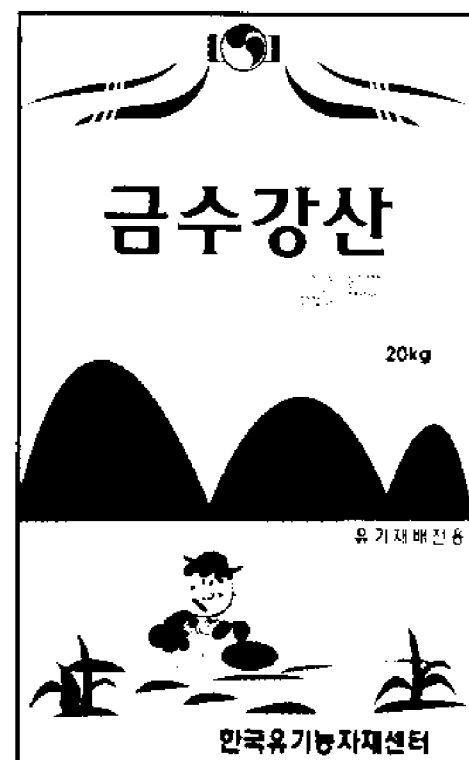
④ 양분분해 특성과 양분흡수 특성의 일치

본 비료의 양분분해 특성은 작물의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별로 양분의 흡수특성에 일치되는 맞춤형 비료가 되어 고품질재배의 기본이 된다.

⑤ 입상제품비료

입상으로 제조되어 시비가 편리하고 토양유실이 적은 완효성 생리활성비료로서 기비 및 추비로 사용한다.

수분함량 3% 이하의 정직한 혼합유기질비료



■ 각 지역별 보급처 안내 ■

- 경주: 대본유기농산 054-775-7687
- 김천: 물레방아친환경 017-520-6002
- 영천: 동명상사 054-337-5808
- 예천: 북부농약마트 054-654-3018
- 상주: 은척농협 054-541-6122
- 봉화: 춘양농협 054-672-3045
- 의성: 금성농협 가음지소 054-833-9809
- 안동: 우진농약사 054-852-4876
- 남해: 남해바이오 011-834-5618
- 하동: 우리농약사 011-9677-3116

- 진주: 남해화학 011-551-5447
- 밀양: 유림산업 055-352-1047
- 김제: 유기농산 063-546-3550
- 담양: 풍년농약사 061-382-1909
- 무안: 해제신협 061-452-6004
- 정읍: 정읍유기농산 017-275-1270
- 나주: 친환경자재정보센터 018-614-3931
- 가평: 가평농약사 011-363-2383
- 논산: 부림유기농산 041-733-6244
- 영동: 그린상사 010-5656-1621